

## 『三賢手簡』에 나타난 ‘道友之交’와 ‘友道論’에 관한 연구

윤 덕 준\*

1. 서론
2. 友道論의 의의와 友道の 類型
  - 1) 우도론의 의의
  - 2) 우도의 유형
3. 『三賢手簡』의 의의와 道友之交
  - 1) 『삼현수간』의 의의
  - 2) 삼현의 도우지교
4. 결론

### <국문초록>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벗 사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도우지교(道友之交)의 참된 벗 사귀의 도리인 우도론(友道論)은 서로 진실하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도우의 아름다운 점을 성취해 주고, 악한 점을 들추지 않고, 끝까지 신의(信義)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인류의 삶과 역사는 남남끼리 만나서 원활한 만남을 유지해 가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우도(友道)의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우도론의 의의와 우도의 유형을 고찰하고, 우도론의 표상인 율곡 이이·우계 성혼·구봉 송익필이 1560~1593년 동안 편지글을 주고받은 『삼현수간(三賢手簡)』에 나타난 그들의 우정과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있었던 도우지교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드러난 그들의 우도와

\*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과정 수료(skkydj@daum.net)

신뢰를 통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사람과 사람과의 진정한 우정 및 신의에 관해 고민하게 하고 그 유형(類型) 속에서 진정한 도우지교를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본다.

\* 주요어: 삼현수간(三賢手簡), 울곡(栗谷), 우계(牛溪), 구봉(龜峰), 도우지교(道友之交)

## 1. 서론

본 논문은 우도론(友道論)의 의의와 우도(友道)의 유형을 알아보고, 울곡·우계·구봉의 편지글 『삼현수간(三賢手簡)』을 중심으로 다루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던 삼현의 '도우지교(道友之交)'를 연구하고자 한다. 『삼현수간』은 기호학의 예학을 출발하게 만든 중심적 텍스트로서 철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삼현의 우도(友道)는 친우들의 사귄과 우정에도 여전한 지침서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현은 가학의 영향을 받아서 선덕을 갖추었고 성리론과 예학을 근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삼현수간』에서 울곡·우계·구봉은 서로를 독려하고 채찍질하며 도우지교를 통한 학문적 교류와 도학적 실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도 파주지역에 거주하면서 나이 또한 비슷하고 학문을 대하는 자세와 자성의 진지함 덕분이었다. 삼현은 『중용』 27장에 나와 있는 유교의 수양 방법을 설명하는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sup>1)</sup>을 통해서 도학 실천에 집중하였고 성리론과 예론을 통해 학문을 완성해 나갔다. 그리고 독서인으로서 삶을 살았고, 자신의 건강과 도우(道友)의 건강까지 걱정하며 약초를 처방하는 유(儒醫)의 역할도 하였다. 『삼현수간』에는 울곡이 만든 소학집주(『小學集註』)·

1) 『中庸』, 27장: “故君子, 尊德性而道問學, 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溫故而知新, 敦厚以崇禮.”: 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높이고 학문을 말미암으니, 광대함을 지극히 하고 정미함을 다하며, 고명을 다하고 중용을 따르며, 옛것을 잊지 않고 새로운 것을 알며, 후함을 돈독히 하고 예를 높이는 것이다.

격몽요결(『擊蒙要訣』)·순언(『醇言』)에 대한 삼현의 견해가 실려 있다.

이러한 편지글에는 삼현의 우정과 서로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서로 비판과 충언을 하면서도 절차탁마하고 교학상장의 도리를 잊지 않으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또한 삼현 각자는 편지글을 통해 각자의 성리(性理)론을 주장하고 논쟁하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성론(性論)에 대한 논리를 정립하여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삼현의 편지글은 구봉의 아들이 『현승편(玄繩編)』<sup>2)</sup>으로 자료를 편집하여 『삼현수간(三賢手簡)』<sup>3)</sup>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것을 임재완이 2001년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하였다. 편지 총 98통 가운데 삼현의 문집에 없는 것은 16통이고, 그중에서 일부분만 실려 있는 것이 15통이다. 그리고 『우계집』에 없는 문장이 『삼현수간』에 남아 있는 것이 많다. 본 논문은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도(道)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도론(友道論)’과 우도(友道)의 유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삼현수간』에 나타난 삼현의 ‘도우지교(道友之交)’를 고찰한다. 아울러 『삼현수간』의 번역 서인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sup>4)</sup>도 살펴보고자 한다.

2) 『현승편(玄繩編)』: 율곡·우계 두 사람이 구봉에게 보낸 편지와 구봉의 답장을 아들 취대(就大)가 모아서 편집한 것으로 원형이정(元亨利貞)으로 되어 있다. 구봉의 문집인 『龜鳳集』 4, 5권에 실려 있다.

3) 양훈식, 「파주삼현의 편지에 나타난 도학담론-『삼현수간』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62집, 중앙어문학회, 2015, 268쪽. 『삼현수간』은 율곡·우계·구봉이 1560년부터 시작하여 1593년까지 개인사(질병, 상장례, 이사, 식재료, 약재 처방 등), 학문(예설, 이기론, 심성론), 인사(송한필, 어언후, 이경진, 정구, 최영경, 김장생, 안민학, 허우, 신박, 조현, 정지연, 이이상, 안경열, 윤면천, 김수, 이제신, 정희현, 최가운, 윤사초, 김선중, 이산보, 백인걸, 이항, 이의진, 정철, 이발, 이희참, 정조보, 박순, 김집 등)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은 편지로써 송의 필의 아들 송취대(宋就大)가 모아서 엮은 것이다. 원본 크기는 37.5×27.0cm이며, 98통의 초서로 된 편지이고, 주역 원형이정에서 이름을 따서 원첩 23통, 형첩 26통, 이첩 26통, 정첩 23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 내용으로 볼 때 임진왜란이 끝나고 기해년(1599년)에 완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승편』이라고도 하며, 『삼현수간』이란 명칭은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삼현수간』은 2004년 8월에 보물 제1415호로 지정되었으며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4) 율곡·우계·구봉 지음, 『三賢手簡』, 임재완 옮김,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 삼성문화재단, 2001.

## 2. 友道論의 의의와 友道の 類型

### 1) 우도론의 의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벗 사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도우지교의 참된 벗 사귀의 도리인 우도(友道)는 서로 진실되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도우의 아름다운 점을 성취해 주고, 악한 점을 들추지 않고, 끝까지 신의(信義)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도의 도리를 밝힌 성현과 명철(明哲) 등의 말씀과 이론이 우도론(友道論)이라 하겠다. 우도론은 참된 세상을 이루는 데 끊임없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와 같은 우도의 유형과 우도론의 개념을 명철들의 말씀과 그들의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났는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인류의 삶과 역사는 남남끼리 만나서 원활한 만남을 유지해 가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우도의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우도(友道)의 또 다른 표현으로 석우(釋友)를 말한 임경주의 견해를 보자.

석우(釋友)는 임경주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벗 사귀의 도(道), 즉 우도(友道)란 과연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5)</sup>

벗 사귀이란 그 도를 벗하는 것이다. 도를 벗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는 도를 취해서 나를 유익하게 함이다. 이런 까닭에 우도에는 귀천과 존비(尊卑)가 없고, 道가 있는 곳이 마땅히 벗해야 하는 곳이다. 옛사람 가운데 요는 대 성인인데 자신의 귀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천함을 천하게 여기지 않아서 덕이 도타우면 왕래하고 도(道)가 높으면 함께 했으니, 자신의 권세를 잊고 남의 어짙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 이르기를 “요께서 순에게 향연을 베풀고 번갈아 빈주(賓主)가 되셨으니 천자로서 필부와 벗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옛사람 가운데 맹자는 대 성인인데 자신의 높음을 높게 여기지 않고 남의 낮음을 낮게 여기지 않아서

5) 김수진, 「18세기 老論系 知識人의 友情論」, 『한국한문학회연구』, 第52輯, 한국한문학회, 2013, 180쪽.

덕이 도타우면 친하게 지내고 도가 높으면 따랐으니, 자신의 많은 바를 잊고 남의 선함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길 “나이 많음을 내세우지 않고, 존귀함을 내세우지 않고, 형제를 내세우지 않고 벗하는 것이니, 벗 사귀이란 그 덕을 벗하는 것인바 내세우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sup>6)</sup>

석우(釋友)와 '우도(友道)'는 '붕우지도(朋友之道)' 곧 '벗 사귀의 도리'를 말한다. 벗 사귀의 도리에 대하여 맹자는 말한다.

만장이 여쭙어서 말씀드리기를, 감히 벗 사귀[友道]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나이 많은 것을 협세(挾勢)하지 않으며, 존귀한 것을 협세하지 않으며, 형제 많은 것을 협세하지 않나니, 벗 사귀이라는 것은 그 덕(德)을 벗 삼는 것이니, 협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sup>7)</sup>

맹자는 제자 만장이 우도를 묻는 데 대해서, '우도'는 다른 사람의 세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협세(挾勢)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평등한 관계에서 벗 사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한 '우도'는 상대방의 출신, 지위, 빈부, 등을 떠나서 그 사귀고자 하는 사람의 덕성(德性)을 보고 사귀는 것을 말하고 있다.

『논어』에서는 우도의 도리를 군자와 소인의 나누어 말하고 있다.

군자와 소인의 구분은 의리(義理)를 추구하느냐 이익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sup>8)</sup>

6) 任敬周, 『青川子稿』 卷3, 〈釋友〉: “友也者, 友其道也. 友道也, 所以取諸彼而益乎我也. 是故凡友之道, 無貴賤尊卑, 道之所存, 友之所宜. 古之人, 有堯者, 大聖人也, 不貴己之貴, 不賤人之賤, 而德厚則來之, 道尊則與之, 忘我之勢, 而取人之賢, 故傳曰: ‘帝之饗舜, 迭爲賓主, 天子而友匹夫也.’ 古之人, 有孟子者, 大賢人也, 不尊己之尊, 不卑人之卑, 而德厚則親之, 道尊則順之, 忘我之多, 而取人之善, 故其爲言曰: ‘不挾長, 不挾貴, 不挾兄弟而友, 友也者, 友其德也, 不可以有挾也.’”

7) 『孟子』, 「萬章」, 「友德」: “萬章問曰, 敢問友. 孟子曰, 不挾長, 不挾貴, 不挾兄弟而友, 友也者, 友其德也, 不可以有挾也.”

8) 『論語』, 「雍也」, 「爲儒」: “君子小人之分, 義與利之間而已.”

군자는 의리를 알기에 벗 사귀는 도리를 다할 수 있고, 소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을 움직이고 의리를 알지 못하기에 진정한 벗 사귀는 못하는 것이다. 군신(君·臣), 사제(師·弟)의 관계도 넓은 의미에서 우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도(友道) 곧 참된 벗 사귀는 도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이 동서고금에 공통된 논리가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9)</sup> 예기(『禮記』)에 공자께서 벗 사귀에 하신 말씀을 보면,

군자의 벗 사귀는 물과 같이 자연스럽고, 소인의 벗 사귀는 달콤하고,  
군자는 담담하면서도 이루고, 소인은 달콤해서 무너지다 하셨다.<sup>10)</sup>

이 말은 군자가 벗을 사귀는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이다. 이처럼 군자는 달콤한 이익을 위하는 벗 사귀는 행하다가 우정을 무너지게 하지 않고, 담담한 물과 같이 변함없는 벗 사귀는 하여 아름다운 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벗 사귀에 있어서 다양한 우정도 좋지만, 글공부를 통하여 성현의 도를 알고 실천하면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우며 보인(輔仁)하도록 서로 이끌어 주는 벗 사귀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9) 丁滿燮, 「韓國 古典文學에 나타난 友道와 友道論 研究」, 西江大學校 博士論文, 2000, 6쪽. 서양에서의 몇몇 友道論을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구약성서』의 「잠언」에 “슬기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슬기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짝하면 해를 입는다.”라고 하였으며, 『구약성서』의 「집회서」에 “성실한 친구는 안전한 피난처요, 그런 친구를 가진 것은 보화를 지닌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영국의 속담에 “우정은 친족보다 강하다.”(Friendship is stronger than kindred.)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금은 불로 시험되고, 우정은 곤경에서 시험된다.”(Gold is proved with fire, friendship with need.)라는 말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修辭學』에서 “서로가 자기 자신으로 해서 친구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좋은 사람들 사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였으며, O. 골드스미스는 『훌륭한 人間』에서 “우정이란 대등한 인간 同志 사이의 이해를 떠난 거래이다.”라고 하였으며, M. E. 몽페뉴는 우애를 ‘화합의 극치’라고 하였으며, G. G. 바이런은 「그리운 메리안에게」에서 “수많은 연인의 情을 모아도 내 가슴에 타는 우정의 불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노래하는 등 “좋은 벗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A good friend is my nearest relative)라고 하였다.

10) 『禮記』, 〈表記〉, “君子之接, 如水, 小人之接, 如醴, 君子, 淡而成, 小人, 甘以壞.”

군자는 글공부를 통해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인(仁)할 수 있게 돕는다.<sup>11)</sup>

군자의 우도(友道) 곧 참된 벗 사귀는 도리는, 서로 진실하게 일러주면서 착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벗의 아름다운 점을 성취시켜 주되 벗의 악한 점을 굳혀 주지 않는 것이며,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며, 포용하는 자세로 널리 대중을 사랑하되 덕(德)을 벗 삼기 위해서 어진이 '仁人'을 가까이하는 것이며, 사양(辭讓)하는 마음으로써 자기 자신보다 훌륭한 현자를 사모하고 높이는 것이며, 시대 연명의 차이와 출신 지위의 고하를 초월하여 덕을 벗 삼는 것이며, 진정으로 뜻이 통하는 참된 벗 사귀는 도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하의 착한 선비와 같아지려고 부단히 자기 몸을 갈고 닦아 자기의 독을 고양(高揚)하는 것이다.<sup>12)</sup>

우리는 진실한 벗 사귀는 하는 군자가 어떤 존재인지, 군자의 개념과 아울러 그 군자가 하는 진실한 벗 사귀는 우도의 개념을 연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진실된 벗 사귀는 도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 2) 우도의 유형

인간의 삶에서 우도가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여 진실한 벗 사귀는 도리를 말한 박지원과 홍낙순의 글을 보자.

먼저 박지원은 “우도가 오륜(五倫)의 끝에 놓였다고 해서 낮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오행(五行) 중의 '토(土)'의 기능이 고루 사시(四時)의 바탕이 되는 것과 같다. 부자·군신·부부·장유 간의 도리는 신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다운 도리 및 사람답지 못한 도리를 우도(友道)가 다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도는 끝에 놓인 이유는 뒤에서 인륜을 통섭케 하려는 것이다.”<sup>13)</sup>라고 하였다.

홍낙순은 “대저 오륜에서 붕우(朋友)는 오행에서 토와 같습니다. 오행에서

11) 『論語』, 「顏淵」, 「輔仁」: “以文會友, 以友輔仁.”

12) 丁滿燮, 앞의 논문, 21쪽.

13) 朴趾源, 『燕巖集』, 卷8, 『放孺閣外傳』, 自序, “友居倫季, 匪厥疎卑. 如土於行, 寄王四時. 親義別敘, 非信奚爲. 常若不常, 友迺正之. 所以居後, 迺殿統斯.”

토가 없으면 능히 세공(歲功)을 이룰 수 없고, 오류에서 봉우가 없다면 능히 인도(人道)를 다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부자(父子)의 덕목은 ‘친(親)’이라 하고, 군신(君臣)의 덕목은 ‘의(義)’라 하고, 부부(夫婦)의 덕목은 ‘별(別)’이라 하고, 장유(長幼)의 덕목은 ‘서(序)’라 하고 봉우(朋友)의 덕목은 ‘신(信)’이라 한 것입니다.”<sup>14)</sup> 라고 하였다.

삼강오륜(三綱五倫)에서 봉우유신(朋友有信)이 제일 뒤에 있지만, 봉우유신이 있어야만 신의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나머지 사륜(四倫)의 윤리를 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우도라고 말하고 있다. 우도의 유형(類型)을 나누어 보면 ‘관포지교(管鮑之交)’·‘도원결의(桃園結義)’·‘봉우지도(朋友之道)’·‘사숙(私淑)’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고 그 특징을 고찰하여 보자.

#### (1)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유형

관중과 포숙의 우도(友道)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이는 포숙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길 정도의 두 사람 사이에 우도는 깊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도우(道友) 관계와 인간관계의 중요성 상대방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유형이다.

춘추시대에 중국 제나라의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의 아름다운 벗 사귀어 있었다. 관중이 곤궁할 때 포숙과 장사를 할 때 관중이 차지함이 많았거늘, 포숙이 나를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포숙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여 다시금 곤궁해졌거늘, 포숙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관중이 세 번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임금에게서 세 번 쫓겨났거늘, 포숙이 나를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관중이 세 번 싸움터에 나아가서 세 번 달아났거늘, 포숙이 나를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공자(公子) 규(糾)가 패하였을 때 동료 소홀(召忽)은 따라 죽고 관중은 깊숙이 간혀서 욕을 보고 있었어도 포숙이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포숙에 대하여 관중은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요,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라 했다. 이처럼 ‘관포지교’는 진정한 벗 사귀어이다.

14) 洪樂純, 『大陵雜書』, 卷7, 「與李修撰亮天書」, “蓋五倫之朋友如土之五行, 五行無土, 不能成歲功, 五倫無朋友, 不能盡人道, 是故父子曰親, 君臣曰義, 夫婦曰別, 長幼曰序, 朋友則曰信.”

도연명의 시 관포(管鮑)에서는, 지기(知己)로서의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의 사귄 관포지교가 군자지교, 담여수의 의미로써 형상화되었다. 옛날 춘추시대의 아름다운 벗 사귄 “관포지교”에서 관중은 포숙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었다고 하고 포숙은 또한 그런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관중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러기에 그 두 사람은 서로 진정한 지기(知己)가 될 수 있었음을 노래한 것이다.<sup>15)</sup>

이해타산적이고 벗 사귄에 마음이 이익을 따라가니 복잡하기 그지없는 후세인들의 잘못된 벗 사귄을 노래하고 있다. 도우지교(道友之交)의 대표적인 관중과 포숙의 변함없는 우정의 고사를 인용한 관포지교는 이익을 따라 부화뇌동하는 소인들의 벗 사귄의 세태를 비판하고, 진실한 우도(友道)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 (2) 도원결의(桃園結義) 유형

도원결의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한다는 뜻으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 유비·관우·장비가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은 데에서 비롯된 말이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한다는 뜻이 있다. 특히 제갈공명의 의리와 충정은 잘 알려져 있다. 유비 사후에 그 아들 유선을 끝까지 보좌하여 출사표(出師表)를 던지면서까지 도우의 신의를 지킨 도우지교(道友之交)의 유형이다. 제갈공명의 출사표는 군·신간의 예의와 신하의 변함없는 충정이 지위의 고하를 넘어 우도(友道)로써 나타났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으로부터 예우를 받고 끝까지 신의를 다하고자 맹세한 제갈공명과 같은 선비는 신분과 지위를 초월하여 우도의 길을 가면서 신하의 도리를 긴 세월을 변함없이 신명을 다해서 행한 우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제갈공명의 후 출사표에서는 몸이 닳도록 고달픔을 다해서 죽은 뒤에나 멈출 것이라는 선비정신을 드러낸 신하의 충정이 우도(友道)로 형상화되었다. 촉한의 선제(先帝) 유비가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제갈공명을 ‘삼고초려(三顧草廬)’ 하였

15) 丁滿燮, 앞의 논문, 205쪽.

다는 것은 벗 사권의 대의(大義)를 말하는 것이다.

### (3) 붕우지도(朋友之道) 유형

① 퇴계의 시 “김신중 파청정(金愼仲 把淸亭)”<sup>16)</sup>에서는, 유가로부터 전해 온 군자의 우도는 이익을 따르는 소인들과는 달리 글공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자기의 인(仁)을 보필해 나가는 벗 사권의 도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퇴계는 군자의 벗 사권은 소인들의 벗 사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경전에 나타난 뜻을 인용한 듯하다.

② 황중해의 한시 “붕우(朋友)”<sup>17)</sup>에서는, 붕우지도의 우도(友道)에 대해서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 친구가 나 자신의 허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적하여 진실하게 충고하고 나를 참된 길로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그 우정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 (4) 사숙(私淑)의 유형

사숙은 존경하는 사람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의 도(道)나 학문을 본(本)으로 삼고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지난 시간의 인물들에 대한 벗 사권에 도리를 하는 유형이다.

① 율곡이 1582년에 지은 「김시습전(金時習傳)」은 『율곡전서』 권14-16 잡저(雜著)에 실려 있는 작자의 유일한 전(傳)이다. 매월당 김시습의 영매한 자질과 세조 반정 이후에 거짓 미치광이로 여생을 숨어 살면서 속뜻을 감춘 매월당의 그 빼어난 자질을 안타까워하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비록 이름은 후세에 전하지는 못했지만, 김시습의 생애를 안타까워하는 것이면서도 속뜻을

16) 『퇴계집』, 「卷之五續內集」: “孔門論會友, 以文仍輔仁, 非如市道交, 利盡成路仁.”: “공문에서 말하는 벗의 모임은, 글월로 모이고 또 인으로 돕고, 장사꾼의 사귄 마냥 이익이 다 하면, 저갓거리 사람 되는 것과 같지 않다.”

17) 황중해, 『朽淺集』, 「卷之一」, 〈朋友第八〉: “女於明鏡, 照面整不, 士欲寡過, 爭友是明鏡”: “여 인네들은 깨끗한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비추어 매무새를 다듬는다네, 허물을 줄이고자 하는 선비에게서, 바른 말을 해주는 벗이 깨끗한 거울이다.”

드리내지 않으려 거짓 미치광이 행세를 한 뜻을 고상하게 여기고 그의 영특한 자질을 아까워하면서 세상에 뜻을 펴지 못한 그의 덕(德)을 율곡이 진정으로 흠모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사숙이다.

② 퇴계의 한시(漢詩) “화도집음주(和陶集飲酒)” 이십수(二十首) 중 ‘기십육(其十六)’<sup>18)</sup>은 정몽주 그리고 김종직과 김굉필 정여창의 덕(德)을 흠모하는 내용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벗 사림의 우도를 표현한 것으로 사숙이라 할 수 있다.

③ 황진이의 시조(時調) “상사몽(相思夢)”<sup>19)</sup>은 황진이가 존경했던 스승인 서경덕에 대한 우도(友道)로 곧 출신, 연령과 지위를 벗어난 벗 사림이며, 사숙(私淑)이라 할 수 있다.

### 3. 『三賢手簡』의 의의와 道友之交

#### 1) 『삼현수간』의 의의

조선 중기에 도학자로서 수기치인의 삶을 실생활에 구현한 인물들로 율곡 이이(1536~1584), 우계 성혼(1535~1598), 구봉 송익필(1534~1599)이 있다. 그 당시의 문인들은 편지를 “마음속 정회를 털어놓아 만남을 대신하는 것”<sup>20)</sup> 이

18)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詩, 「和陶集飲酒」, 二十首 中 「其十六」: “吾東號鄒魯, 儒者誦六經. 豈無知好之, 何人是有成. 矯矯鄭烏川, 守死終不更. 估畢文起衰, 求道盈其庭. 有能靑出藍, 金鄭相繼鳴. 莫逮門下役, 撫躬傷幽情.”: “鄒·魯라 일컬어지는 우리 東邦에, 선비들은 六經을 노상 외우네. 알고 또 좋아하는 자 어찌 없으리오만, 이루었다 할 분 그 누구이더뇨. 우뚝히 솟아난 저 烏川 鄭夢周 先生, 죽도록 지켜 끝내 변치 않았네, 估畢齋 文章은 衰世를 흥기시켜, 道 찾는 인물들이 門庭에 가득했네. 藍에서 나온 靑이 그 속에 있어, 金宏弼·鄭汝昌이 서로 이어 울리었다오, 門下의 부림꾼에도 못 미쳤으니, 몸을 어루만져 그윽한 情을 슬퍼하네.

19) 김해리, 「황진이 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7, 48쪽. “相思相見只憑夢, 農訪歡時歡訪農. 願使遙遙他夜夢, 一時同作路中峰.”: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내가 님 찾아 떠났을 때 님은 나를 찾아왔네. 바라거나, 언제일까 다음날 밤 꿈에는, 같이 떠나 오가는 길에서 만나기를.”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두 벌을 써서, 한 통은 자신이 잘 간직하고 다른 한 통은 상대방에게 보냈다. 받은 편지와 보관한 편지는 훗날에 함께 엮어서 하나의 편지첩을 완성을 했는데, 송익필이 남겨 전한 것이 『삼현수간(三賢手簡)』이다. “임창순(1914~1999)은 삼현의 글씨체에 대해 율곡은 재기발랄하며, 우계는 아버지 청송 성수침(聽松 成守琛)의 글씨를 본받아 온화하고 힘이 있다고 하였고, 구봉의 초서는 기운이 넘쳐흐른다고 하였다.”<sup>21)</sup>라고 평하였다. 이는 ‘글씨는 바로 그 사람과 같다’고 해서 인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삼현수간』에는 삼현의 초서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고결한 정신과 기품이 선 비로서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며 도학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기 논변은 율곡과 우계가 주고받은 왕 복서를 통해서 주로 오고 갔으며, 예학에 관한 논변은 두 분과 구봉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삼현이 도학적 사유체계에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학적 사유는 이기론과 수양론의 의리가 체용(體用)과 본말(本末)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내외(內外)와 표리(表裏)관계를 이룬다. 도학의 체계에서 이기론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해 인식과 실현하는 바탕이라면, 수양론은 출처의 의리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은 예학(禮學)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도학의 결론은 군주가 백성을 보호하고 살리는 도리가 예학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도학 담론은 이러한 도리를 주고받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 삼현이 가졌던 도문학으로서의 연구와 실천적 삶은 도학적 사유의 바탕이 되었다. 삼현의 교우관계와 학문 관계를 『삼현수간』을 통하여 보면, 세 분은 가학의 연원과 학문적 관점과 출신 신분과 각자의 재능이 각기 다르지만 어려서부터 도우지교를 맺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우정은 흠모의 대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삼현의 교유가 더욱 특별해진 것은 서로 주고받은 편지글 때문이다. 그들은 편지로써 ‘이기론’, ‘예학’, ‘수기론’

20) 심경호, 『간찰, 선비의 마음을 읽다』, 한얼미디어, 2006, 333쪽. 편지는 상대방과 소식이나 용건을 주고받는 글이다. 이는 “簡牘·簡札·書簡·書信·書狀·書札·書翰·尺牘”이라고도 하였다.

21) 율곡·우계·구봉 지음, 앞의 책, 13쪽.

22) 梁勳植, 앞의 논문, 278쪽.

등의 논변을 펼쳐가며 성리학적 사상의 기반을 쌓아 가는데, 때로는 냉정한 비판과 애정 어린 충고를 이어나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자의 학문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정립되게 된다. 이로써 『삼현수간』의 가치는 평가되어진다. 이러한 “삼현의 편지글을 분석해 보았을 때, 우계가 의양(依樣)의 맛이 있어서 규범을 준수하며, 예법에 공력을 기울이고 경(敬)을 학문의 기조로 삼았다면, 율곡은 자득을 중시하고 변통을 강조하였으며, 경(敬)보다는 목적성을 지니는 성(誠)을 더 강조하였고, 구봉은 성리학과 예학뿐만 아니라 경제와 교우관계에서도 직(直)으로써 일관하여 성의(誠意)와 치심(治心)을 강조하며 천리에 순응하는 안분지족의 수양을 실천하고 있다.”<sup>23)</sup> 삼현은 정치 사회적으로도 당파싸움에 휘말렸으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으로 사지로 몰리는 위협을 겪거나 신분적 굴레에 얽매이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지만, 결코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학자 본연의 사명과 천명에 순응하는 수양을 하면서도 평생 변치 않은 도우(道友)를 보인(輔仁)으로 실천하였다. 즉, 이들 상호의 절차탁마(切磋琢磨)는 실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연유로 후일 기호유학(畿湖儒學)에서 성리학과 예학에서 큰 산맥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조선 유학사상사에 큰 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삼현의 도우지교에서 우도(友道)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삼현의 도우지교

### (1) 삼현의 저작물에 대한 논변

삼현은 각자의 저작물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교정을 부탁하기도 했다. 먼저 율곡이 지은 『소학』에 대한 우계의 진심 어린 우려와 구봉의 냉정한 비평을 알아보자.

율곡이 지은 ‘소학(小學)’<sup>24)</sup>에 대해서 우계가 구봉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

23) 김창경, 「『三賢手簡』을 통해서 본 구봉·우계·율곡의 道義之交와 學問交遊」, 『儒學研究』, 第27輯,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2, 83쪽.

24) 중국 송의 유자정이 스승인 주희의 지시에 따라 여러 경전에서 동몽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범절과 수양을 위한 격언과 충신·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1185년부터

를 보냈다.

숙헌이 저에게 소학(『小學』)의 발문을 부탁하여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sup>25)</sup> 감히 형을 본받고자 합니다. 삼가 형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 짓는 일은 본래 솜씨가 서툰 일인 만큼 다시는 부탁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형에게 가르침을 바라는 것은 논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글에 대하여 비평을 한 다음 되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sup>26)</sup>

구봉은 율곡이 지은 ‘소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냉철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다.

형께서 『소학』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모은 것도 역시 미진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학』, 명륜(明倫)에 “子之事親, 三諫不聽, 則號泣而隨之”<sup>27)</sup>가 있습니다. 형은 수행(隨行)이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미자(微子)가 한 말은 결단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소학』 계고(稽古)에 미자가 말하기를 “子三諫不聽, 則隨而號之. 人臣三諫不聽, 則其義可以去矣”<sup>28)</sup>라 하였습니다. ‘수지(隨之)’는 다만 부모를 떠나지 않

---

편집을 시작하여 2년 후에 완성했다. 내편 4권과 외편 2권이며, 내편은 입교·명륜·경신·계고, 외편은 가언·선행 순으로 되어 있다. 내편은 <서경>·<주례>·<예기>·<효경>·<논어>·<맹자> 등의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고, 외편은 주로 송대 제유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다. 유교의 효와 경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인간상과 수기·치인의 군자를 기르기 위한 계몽 교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5) 栗谷 李珣가 『小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注釋을 모아 『小學諸家集說』을 지었는데 成渾이 跋文을 쓴 것이다. 『牛溪集』(권6-41)에 「小學集註跋」이라는 글이 있는데 쓴 시기는 1580년이다.
- 26) 율곡·우계·구봉 지음, 앞의 책, 47쪽. 牛溪가 龜峯에게: “且叔獻微余小學跋語, 不敢辭之. 敢效順于尊兄. 謹以先稟座前. 乞賜斤正何如. 文字固是本色蕪拙, 無所復請. 所欲望於鑄誨者. 乃其議論如何耳. 伏乞批還. 何如.”
- 27) 『小學』, 「明倫」, 023: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 부모의 잘못을 세 번이나 간 했어도 듣지 않으면 울부짖으며 부모의 뒤를 따르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다.
- 28) 『小學』, 「稽古」, 022: 아버지가 허물이 있어 자식이 세 번 간하여 듣지 않으면 따라다니면서 울부짖지만, 남의 신하가 된 자는 세 번 간하여 듣지 않으면 그 의리가 떠나갈 수 있다.

는다는 뜻입니다. 형은 행(行)이라고 하였는데 아마 본의(本義)가 아닌 듯합니다. 『예기(禮記): 곡례하(曲禮下)』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爲人臣之禮, 三諫而不聽, 則逃之. 子之事親也, 三諫而不聽, 則號泣而隨之” 본문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연구를 한 후에 뒤에 책을 발행함이 좋을 듯합니다. 형께서 『격몽요결』 간행을 허락했다고 들었습니다. 『격몽요결』중에서 속례(俗禮)와 연관된 문장에서는 저는 늘 불만(不滿)의 뜻이 많습니다. 형께서 산삭(刪削)하여 바로 잡으심이 어떠하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다만 한 집안의 자제들이 불만한 책이지, 아마도 널리 행해지는 결정된 예(禮)는 아닌 듯합니다. 『소학』의 간행은 충분히 상의하시기를 바라며 『격몽요결』 같이 쉽게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sup>29)</sup>

이러한 날이 선 비판에도 불구하고 율곡의 답장은 마음에 동요가 없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도우를 위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작은 문어를 보낸다고 하면서 자신도 돈이 없어서 다른 부분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삼현 서로의 믿음과 애정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고 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소학』은 지금 한창 교정(較正) 중이므로 보내지 못합니다. 부분(副本)도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별록(別錄) 가운데 ‘맛있는 음식은 얻는 대로 다 먹는다.’고 하였는데 우스운 일입니다. 작은 문어(文魚) 두 마리 보내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답장 보냅니다.<sup>30)</sup>

『소학』이 1584년이라 할 때 이 편지는 1583년으로 보고 있으니, 율곡이 죽

29) 율곡·우계·구봉 지음, 앞의 책, 57-58쪽. 龜峯이 栗谷에게: “兄所輯註小學, 變多未盡處, 如子之事親, 主諫不聽, 則號泣而隨之, 兄註以隨行, 以微子言, 斷其不然, 寤舌薇子曰, 子之事親, 三諫不聽, 則隨而號之, 人臣三諫不聽, 則其義可以去矣, 隨之只不, 去之云也. 行字恐非本義. 又曲禮全文云. 爲人臣之禮, 三諫而不聽, 則逃之. 子之事親也, 三諫而不聽, 則號泣而隨之. 本文之意如是. 如此處多. 俟相見講磨, 然後印行爲妙. 聞兄許印擊蒙要訣. 要訣中俗禮處, 常多不滿之意. 未知兄其加刪正耶. 不然則只可爲一家子弟之覽, 恐不可爲通行之定禮也. 小學之印, 更須十分商議, 無如擊蒙之易, 千萬幸甚.”

30) 위의 책, 93쪽. 栗谷이 龜峯에게: “『小學』方有所較正, 故不能送上. 恨無副本也. 別錄答上, 美味隨得隨盡, 可笑. 小文魚二尾, 汗表良愧, 伏惟下照, 謹拜答狀.”

기 1년 전 인 것이다. 율곡은 우계에 ‘소학’의 발문을 부탁하였고, 구봉에게는 ‘소학’의 교정을 부탁하였다. 율곡은 자본이 부족해서 부분(副本)을 마련해 놓지 않고 원본으로 교정보고 다음에 구봉에게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를 토로하고 있다. 여기서 삼현은 ‘소학’의 완성에 정성을 기울였다. 이는 유학자들이 중시하는 도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이론서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율곡이 추천한 공부하는 순서를 보면 첫째는 『소학』, 둘째는 『대학』, 셋째는 『중용』으로 말하고 있다. 송나라 주자가 감수하고 그의 제자 유청지가 편찬한 ‘소학’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삼현은 제가(諸家)의 설을 참조하여 『소학』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실로 도학의 지평을 확충하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소학집주』는 삼현의 도학 정신과 그들의 정성이 담긴 진덕수업(進德修業)을 확충한 도학의 집적물이라 할만하다.<sup>31)</sup>

## (2) 삼현의 공동체적 이상향

주자가 평생 은거했던 무이산을 조선 사대부들은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를 그리면서 이상향에 대해 동경을 하였다.

유학의 이상향은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요산요수(樂山樂水)의 묘미를 즐겼다. 이곳에서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도학적인 안빈낙도가 이루어지는 이상향의 공간을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율곡은 해주에 은병정사를 짓고 석담의 풍경을 주자의 “무이구곡가”<sup>32)</sup>에 버금가는 “고산구곡가”<sup>33)</sup>를 읊었다. 『삼현수간』에 나타난 도학적 공동체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웅담사(熊潭事)에 대해서 살펴보자.

삼가 문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잘 계시는지요. 그림고 그림습니다. 저

31) 梁勳植, 앞의 논문, 285쪽.

32) 주자(朱子)가 지금의 복건성 무이산(福建省 武夷山) 계곡의 아홉 구비 경치를 노래한 것이다.

33) 1578년(선조 11) 이이가 해주의 석담에 은거할 때 수양산에 들어가 풍경을 노래한 것이다. <율곡전서>·<악학습령 樂學拾零>·<병와가곡집 瓶窩歌曲集>·<시가>·<악부>·<청구영언>·<시조유취>·<해동가요>·<현가궤범 絃歌軌範> 등 많은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서곡(序曲) 1수를 비롯하여 제1곡 관암, 제2곡 화암, 제3곡 취병, 제4곡 송애, 제5곡 은병, 제6곡 조협, 제7곡 풍암, 제8곡 금탄, 제9곡 문산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치와 흥을 읊었다.

는 휴가를 얻어 파주로 왔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방문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관직에 얽매어 있으니 얼마나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웅담사(熊潭事)<sup>34)</sup>는 방숙(方叔)<sup>35)</sup> 한번 만나 세세히 토론하고 싶었으나 아직껏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시간을 뒤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끝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초이틀 날에 호원(浩原: 성혼)과 밤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대가 튼튼한 사람이라 누추한 곳을 찾아 주신다면 추위 정도야 아무 것도 아니겠지요. 탄식만 나옵니다, 읽어주십시오. 삼가 안부 묻습니다.<sup>36)</sup>

율곡은 구봉에게 웅담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심의겸<sup>37)</sup>과 상의를 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우계와의 밤샘 담론을 기대하고 있고, 구봉의 방문도 독려하고 있다. 율곡은 무이산 같은 곳에서 토론과 강론 그리고 “파주 향약”<sup>38)</sup>과 같은 자치적인 성격의 도학적 공동체의 이상향을 생각한 듯하다.

어공(魚公)이 왔길래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펴서 읽어보니 기쁜 감정이 형을 직접 대면한 듯합니다. 다만 건강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저 [율곡] 는 손님을 맞이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호원(浩原:成渾의 字)을 초정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의 집에 투숙하였다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웅담사(熊潭事)가 만약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즐거움을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방숙(方叔: 沈義謙의 字)에게 물어서 허락을 받는다면 집을 짓는 비용은 저 역시 약간 돕기로 계획하였습니다.<sup>39)</sup>

34) 現)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30번지, 「상서대」 주변으로 예상된다.

35) 方叔: 沈義謙(1535~1587)의 字이다.

36) 율곡·우계·구봉 지음, 앞의 책, 24쪽. 栗谷이 龜峯에게: “謹問. 侍候何如. 戀仰戀仰. 珥受由來坡. 期限甚促. 雖欲歷拜. 不可得也. 可恨. 麋鹿受羈. 不知能忍幾許時耶. 熊潭事. 切欲一見方叔細論. 而迄不能得. 可知卯酉無暇也. 若此度却光陰. 終至做什麼事乎. 初二日欲與浩原作夜話. 君若健人則或可臨陋. 奈不能冒寒何. 可嘆可嘆. 伏惟下照. 謹拜問. 十一月二十九日. 珥拜.”

37) 심의겸(1535~1587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척신이다.

38) 파주 향약은 1560년(명종 15)에 작성되었다. 서문을 율곡 이이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9) 율곡·우계·구봉 지음, 앞의 책, 25쪽. 栗谷이 龜峯에게: “魚公之來. 獲承惠手簡. 披閱欣感.

율곡은 응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계이지만 자신도 자금을 내어서 보탬이 되겠다면서 응답사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드러내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도굴지사(道窟之事)는 보내주신 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너무 아득하게 멀어서 사람들에게서 계획이 멀어질까 걱정됩니다. (중략) 고인을 살펴보면 비록 대현(大賢)의 자질이 있다고 하여도 사우(師友)들의 도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후에야 도굴(道窟) 역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주신 편지에서 이 일과 관련된 사항을 본 적이 있어 마음에 두었습니다. 혹시나 말이 잘못될까 매우 걱정됩니다. 도굴(道窟) 역시 사람이 찾아갈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중략) 그러나 숙헌이 때때로 와서 찾아준다면 사방의 선비들 역시 당연히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말석이나마 얻어 문답하는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끼이게 된다면 어찌나의 큰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행입니다.<sup>40)</sup>

여기에서 '도우지교'의 삶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가 “마을이 인후 한 곳이 아름다우니 인후 한 마을에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sup>41)</sup>라고 말한 것처럼 우계는 구봉에게 파주의 응답이라는 곳에 집을 지을 때 이 점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거처의 중요성은 대학(大學)에서 언급한 피꼬리도 제 머물 곳을 잘 찾아서 사는데 사람으로서 새만 못해서야 되겠는가라는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sup>42)</sup> 그리고 후배들과도 교류하여 교학상장 하는 인물이 되도록 당부한다. 이는 논어에 공자가 “인자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如對雅儀。第審調況尙未康復。戀慮亦極。瑀緣客煩。不能邀浩原。昨日投宿歇家。今日始還耳。熊潭事若成。則幸可言耶。當扣方叔。若蒙許諾。則築室之費。瑀亦略助爲計。”

40) 위의 책, 22쪽. 牛溪가 龜峰에게: “道窟之事, 謹悉來教. 尙恐期日太遠. 人謀或有遷就也 (중략) 竊觀古人, 雖大賢之資, 尙不能無待於師友之旁助. 況後學之疎略乎. 如渾廢疾. 終日昏昏. 摧頹消沮於窮獨之中者, 日甚一日. 間或奉接於一世之賢俊, 則慨然有豎立之意. 稍覺數日氣味之厚. 豈此吾之所能自辦耶. 不論講論之益, 而扶植本原之功, 爲尤重也 (중략) 四方之士, 亦當有至者. 渾則陪追於下席. 竊自比於答問之一, 豈非吾之大幸耶. 伏惟深諒之. 幸甚幸甚.”

41) 梁勳植, 앞의 논문, 285쪽: 『論語』, 「里仁篇」, 1章: “子曰 里仁爲美 擇不處仁 焉得知”

42) 위의 논문, 286쪽: “詩云 緡蠻 黃鳥 止于丘隅. 子曰於止, 知其所止, 可以人, 而不如鳥乎.”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sup>43)</sup>라고 한 데 나오는 말이다. 이처럼 우계는 아무리 뛰어난 구봉도 삼현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도를 이룰 수 없으며,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자세로 도(道)를 이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도굴(道窟)은 즉 파산(坡山)의 웅담(熊潭)입니다. 물도 맑지 않고 돌도 넓지 않으며, 토지도 또한 척박하여 버려두었습니다. 울곡과 함께 안협(安峽)의 우미(于麋)로 다시 옮길까 하여 구산(龜山)의 송추(松楸) 아래 서실(書室)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후에 안협 역시 성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애초 구산은 바다와 가깝고 바람이 많아 병든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좋은 산수(山水)를 찾고자 한다면 운곡(雲谷)이나 병암(屏巖) 또는 상원(上院) 등 십 여 곳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자도 부족하고 또 병에 걸려 마침내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습니다.<sup>44)</sup>

삼현의 도학적 이상향이라 할 수 있는 웅담사(熊潭事)는 아쉽게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물자도 없고 몸도 병들이 들어서 마침내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상향은 대개 시대상을 반영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가 혼란하거나 정치적인 공세와 착취가 가혹하면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성이 심할수록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추구는 더욱 강렬하였다. 그러나 삼현이 추구하였던 이상향은 현실 도피가 아닌 자연의 토대에서 학술적인 활동과 사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웅담사는 시기적으로 논의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삼현의 이상향이라 할 수 있는 파주의 웅담사와 또 다른 곳을 찾았지만 결국 인위적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무산된 것이다.

43) 『論語』, 「雍也篇」, 28章: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44) 울곡·우계·구봉 지음, 앞의 책, 25쪽. 龜峯이 牛溪에게: “道窟, 卽坡山之熊潭也. 水石不清曠, 土又不饒, 棄之. 與叔獻更卜于安峽之于麋, 而先築書室于龜山之松楸下. 其後安峽亦未得成就焉. 初以龜山濱海多風, 不宜病人. 欲卜得好山水, 或雲谷或屏巖或上院, 點指十餘區. 既無物力, 又要疾病, 竟未一遂焉印.”

## (3) 삼현의 우도(友道)

삼현의 도우지교(道友之交)는 도우간의 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교과서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율곡·우계·구봉은 나이도 비슷하고 파주를 중심으로 활동의 무대도 같아서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도학(道學)에 뜻을 두었으며, 삼현의 우정은 평생 변함이 없었다. 삼현이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며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과 인간미를 통해서 그들의 우도를 알아보자.

『치인심방(治人心方)』을 오랫동안 보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형이 부탁한대로 보내 드립니다. 숙현은 변통(變通)을 좋아하는데 그의 병입니다. 현금의 비방하는 논의도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과오를 공평히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어(靑魚) 몇 마리 종이에 싸서 보냅니다. 물이 들어가 좀 상하기는 했지만 채소보다야 나은듯하니 감히 형께 보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의 통증은 피가 응고된 것인가요? <겨자씨를 잘게 부수어 물과 섞어서 바르면 괜찮다고 합니다. 또 침을 놓아 나쁜 기운을 빼는 것도 역시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 선군(先君)께서 이 질병에 걸려 고생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sup>45)</sup>

근래에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생각건대 형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14일 보내신 편지를 받고 형께서 배 [腹] 속에 병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솟구치는 걱정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회복되었는지요? 육종용(肉在蓉: 약초 이름)은 서울에서 왔는데 다만 세 냥 반입니다. 지금 사람을 시켜 빨리 보냈습니다. 또 보내주신 노루고기 포 십정(十艇)을 받았는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sup>46)</sup>

45) 위의 책, 41쪽. 牛溪가 龜峯에게: “『治人心方』, 久未回納. 愧仄愧仄. 今如所戒奉送也. 叔獻喜變通, 自是渠病. 今之謗議, 自家當與外人, 平分其過, 可也. 如何如何. 靑魚數箇, 包紙中奉呈. 水浸爛烹, 却勝菜根, 敢以獻於兄也. 伏惟照諒. <臂痛有凝結耶. 以芥子作末, 和水付之爲妙. 又以針針洩氣亦妙. 曾學得於先君患此疾時矣. >”

46) 위의 책, 43-44쪽. 牛溪가 龜峯에게: “上狀雲長, 尊兄 座前比日寒嚴. 伏惟道理保攝何似. 前承十四日手札, 恭審有腹中之疾. 不勝馳念, 即今已就康復否耶. 肉徒蓉, 自城來, 只是三兩半. 今使馳獻矣. 且蒙下饋獐脯十艇, 珍感珍感.”

질병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나 약을 쓸 수 없는 시골사람이야 분수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형 같은 분이야 의원이나 약을 쓸 수 있는데도 도리어 쓰지를 앓고 있으니 검소한 생활이라고 칭찬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삼소(參蘇)는 몸이 허한 사람에게 먹일 경우 많이 마시게 하면 도리어 그 허한 곳을 더 심하게 합니다.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오로지, 내상(內傷)을 치료하고 곁에서 외부 증세를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바라건대 명의(名醫)와 의논하심이 어떻습니까?<sup>47)</sup>

위 예문을 보면 삼현이 서로 한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한약 치료책을 돌려서 보기도 한다. 물고기와 노루고기 말린 것도 보내주면서 서로가 인간적인 존경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된 학문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유가(儒家) 본연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람의 냄새가 새어 나오는 인간학(人間學)임을 알 수 있다.

봉급으로 받은 쌀과 콩 두 되를 부끄럽지만 보냅니다. 포대는 제가 보낸 사람이 돌아올 때 보내주심이 어떠하신지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sup>48)</sup>

지금 호원이 저에게 보내온 서찰을 보았는데 형께서 수시재상(隨時宰相)이 되거나 앓을까 염려하면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형을 좀 조심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수시재상은 수시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자입니다. 형께서 이런 모양을 용인해서야 되겠습니까?<sup>49)</sup>

우계와 구봉에게서 울곡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 씀을 볼 수 있다. 울곡이 대제학(大提學)을 거쳐서 재상(宰相)으로 올라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계와 구봉은 진심 어린 충고와 고언을 하고 있다. 주관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

47) 위의 책, 49쪽. 牛溪가 龜峯에게: “疾者, 人道所宜慎, 若夫窮村下俚之人勢不及於醫藥者, 隨分安之可也. 如尊兄可以爲之, 而反不爲, 則還爲險僻之道, 不足多也. 況參蘇, 飲虛人, 不宜多服, 反以益其虛. 不如補中益氣湯專治內傷而兼解外感也. 願與名醫通議, 何如.”

48) 위의 책, 65쪽. 栗谷이 龜峯에게: “祿米菽各二斗汗呈. 侂則因便還送如何. 伏惟下照. 謹拜狀.”

49) 위의 책, 78쪽. 龜峯이 栗谷에게: “今見浩原寄僕書, 慮兄之作隨時宰相, 屬僕相警. 隨時宰相, 乃隨時俯仰者也. 兄豈容有是模樣.”

시재상(隨時宰相)을 경계한 것이다. 여기에 율곡도 작은 녹봉이지만 그것을 구봉에게 보내면서, 나중에 구봉이 그 포대에다가 다른 것을 보낼까 마음이 쓰여서 바로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삼현이 서로에게 대하는 정성을 보면 관포지교를 넘어서는 도우지교(道友之交)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참된 벗 사귀기를 행하는 우도론(友道論)과 그 유형을 통해서 참된 벗 사귀기의 도리 곧 우도(友道)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거기에서 우도의 개념과 벗 사귀기의 도리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벗 사귀기의 유형을 보면서 우도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도우지교(道友之交)는 나이의 차이를 떠나서 뜻을 같이하고 지위를 달리하는 군(君)·신(臣)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맹자 자신도 공자를 사숙(私淑)한 자(者)라고 하듯이 우도(友道)의 바탕이라고 할 신의(信義)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삼현수간』을 통해서 본 삼현은 서로에 대한 우도(友道)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신과 지위의 고하(高下) 그리고 빈부라는 현실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서로의 덕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삼현은 서로 교학상장 하며 학문에 힘쓰고, 서로가 쓴 저작물을 공유하며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충고와 조언하는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중기 기호 유학의 시작점인 율곡과 우계 그리고 구봉의 교류를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철학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삼현의 ‘도우지교(道友之交)’는 결국 ‘이우보인(以友輔仁)’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도의 개념과 벗 사귀기의 도리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는 『삼현수간』이야말로 이러한 신의를 바탕으로 한 우도의 면모를 잘 드러내 보이면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정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삼현수간』에 나타난 ‘도우지교’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도(道)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우도(友道)라 하겠다.

## 참고문헌

### 1. 사료

『구봉집』 『논어』 『대릉잡서』 『맹자』 『삼현수간』 『소학』 『우계집』 『울곡전서』 『증용』 『청천자고』 『퇴계집』 『현승편』 『후천집』

### 2. 논저

- 김수진, 「18세기 老論系 知識人의 友情論」, 『한국한문학연구』, 第52輯, 한국한문학회, 2013.
- 김해리, 「황진이 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7.
- 김창경, 「『삼현수간』을 통해서 본 구봉·우계·울곡의 도의지교와 학문교유」, 『유학연구』, 제2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2.
- 심경호, 『간찰, 선비의 마음을 읽다』, 한얼미디어, 2015.
- 양훈식, 「파주삼현의 편지에 나타난 도학담론-『삼현수간』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62집, 중앙어문학회, 2015.
- 울곡·우계·구봉 지음, 『삼현수간』, 임재완 옮김,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 삼성문화재단, 2001.
- 장주식, 『삼현수간』, 한국고전번역원, 2013.
- 정만섭,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우도와 우도론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00.
- 파주시, 『삼현수간』, 파주시청, 2016.

〈Abstract〉

### 『Samhyunsoogan』 Appearing ‘Dwoojigyo’ and the Doctrine of Friendship Research

Yoon, Deok-Jun

Udo-ron, the true principle of companionship of the do woo ji gyo, which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in living the world, is to lead each other to the truth and the right path, to achieve the beauty of Do, not reveal evil points, and not betray faith until the end. Human life and history have developed as men and women meet and maintain smooth encounters. Therefor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history of mankind has been made up of human and human encounters, so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ignificance of udo-ron and the type of udo-ron, and examine the do woo ji gyo, where Yulgok Yi Yi, Ugye Seong-hon, and Gubong Song Ik-pil, who shared their friendship and human friendship between 1560 and 1593. And I would like to find the value of life that can represent the times through their likelihood and trust revealed at the center. This consideration is believed to help people ponder about their true friendship and good faith with people and to help them feel the true do woo ji gyo in their type.

\* Key Words: 『Samhyunsoogan』, Yulgok, Woogye, Goobong, Dwoojigyo

· 논문투고일: 2022년 6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2년 7월 1일 · 게재결정일: 2022년 7월 5일